10월의 사양관리

♣축산연구소

일반 사양관리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그러나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바뀌었고 아침 이슬이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는 시기이다. 밤낮의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야간에 갑작스런 기온저하에 대비하여 환절기 송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여름동안 수고하여 담아두었던 옥수수사일리지를 이용하는 시기이다. 옥수수사일리지를 파 먹일 경우, 사일리지는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2차 발효가 시작되므로 배출 면을 수직이 되게 하여 공기가 사일리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해주어야 하며 파 먹인 후 비닐로 잘 덮어 두어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월동용 조사료인 볏짚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볏짚의 영양적 사료가치는 적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조사료원 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확보하되, 비를 맞으면 기호성과 영양분이 크게 떨어지므로 벼 수확 직후 최대한 비를 맞히지 말고 잘 말려 신속히 수거하고 반드시 비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은 창고 등에 보관한다. 또한 시기적으로 동절기를 대비하여 우사, 송아지 방, 분만실 등을 수리하고, 여름철 걷어 올려 두었던 윈치 커텐의 이상 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여름철에 사용하던 그늘막, 스프링쿨러, 송풍기 등을 철거 또는 점검하여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여 둔다. 바람직한 축사환경 관리를 위해 낮에는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고, 항상 통풍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한다. 또한 착유기 부품을 점검해 보고 원유 여과망도 점검하여 양질의 원유가 유지 되도록 한다.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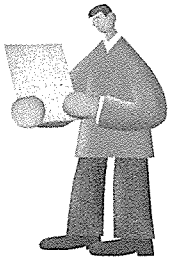
여름철 고온기에 높여 주었던 영양소 수준을 계절이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주변의 컨설턴트나 사료회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각 농장의 실정에 적합하게 배합비를 조정해 준다. 배합비 조정에 의해 조사료 종류와 농후사료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경하여 갑작스런 사료변경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한다. 육성우는 목장에 당장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육성우의 단계별 사양관리에는 건초의 질과 농후사료급여량을 조절하여야하며 정확한 육성우 BCS 측정의 안목을 높여 건강하고 용적이 큰 반추위를 가진 후보축을 육성한다. 육성우 첫 종부는 월령보다는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종부에 알

맞은 체중은 340~360 kg이다. 적당한 사양관리에 의하여 생후 14~15개월령에 체중이 350 kg전후로 도달하게끔 육성하여 종부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착유우 사양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MUN(우유중 요소태 질소의 수준)수치를 관찰하는 일이다. 즉, MUN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젖소에게 단백질의 급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MUN값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12~18mg/이 범위가 정상적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개체별 MUN값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소에 따라 단백질 과잉 또는 부족을 나타내므로 전체적으로 급여하는 사료 단백질의 양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MUN값이 18mg/dl이상이 되면 번식장애가 야기된다고 하므로 단백질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준다.

방역 및 위생관리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BVD-MD),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 등은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자주 발생되므로 축사내 환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호흡기 백신을 송아지에게 실시한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BVD-MD)은 급성, 만성의 전염병으로 식욕감퇴, 설사, 탈수, 호흡기 증상, 구강염, 발열(39.5~42℃), 유·사산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예방으로는 소 바이러스성 설사-소 전염성비기관염-파라인플루엔자-3 바이러스의 3종 혼합예방약이 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은 접촉 및 오염된 사료, 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며, 주요증상으로는 식욕부진과 유량 감소, 열(39~40℃)이 있고, 호흡곤란과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예방책으로는 병에 걸린 가축은 격리 수용하고 오염된 축사를 소독하고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질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다. 깨끗하고 청결한 축사관리 및 정기적인 소독실시에 최선을 다한다(자료: 가축위생과 질병-소질병, 농촌진흥청, 2002).

초지 및 사료작물

초지는 월동준비를 위해 방목은 초순까지 마치고 마지막 청소베기를 실시하며, 초지 및 호맥의 초장이 10~15㎝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모작으로 재배한 유채나 연맥 등 사료작물은 양질의 조사료로 수확량이 최대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미 수확된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 등은 보관 및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에 사용된 각종 기계장비는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정비하여 창고에 보관한다.

〈자료제공 : 축산연구소〉